

女 핸드볼대표
높아진 위상

“이번에는 반짝 인기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요.” 2008 베이징올림픽을 앞둔 여자핸드볼 대표
팀이 갈수록 높아진 위상을 실감하고 있다.
여자핸드볼 대표팀은 28일 낮 훈련장인 태릉선수촌
오류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격려를
받았다.
중국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현장에서 화상 전
화로 훈련 중인 선수들과 통화를 한 것.
1988년 서울,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연
속으로 금메달을 따냈던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격려를
받은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이처럼 여자핸드볼이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訪中 李 대통령 화상통화 격려

이례적인 일...선수들 사기충천

가장 위상이 높은 종목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은
올림픽 예선 재경기를 치른 데다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자핸드볼 대표팀은 지난날 유인촌 문화관광
체육부장관과 함께 식사를 했고 이번에는 대통령
과 얼굴을 보면서 화상통화를 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통화 상대는 주장인 '철벽 수문장' 오
영란(백산건설).
이 대통령은 올 초 영화 선수들과 함께 우생순
을 관람했던 것을 강조하며 여자핸드볼에 친근함
을 보였고, 특히 오영란에게 "스웨덴 전자훈련을
갔다거 어찌 귀국했다던데 신랑인 강일구는 만나
봤느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더 노력해서 꼭 우승하길
바란다"며 파이팅을 외쳤다.
오영란은 짧은 통화를 마친 뒤 "매우 떨었고 긴
장 많이 했다"며 "핸드볼이 비인기 종목인데 대
통령께서 신경 써 주시니 부답이 된다. 그만큼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여자핸드볼 국가대표팀 오영란 선수가 28일 오전 태릉선수촌 오류관에서 중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영상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호 대우차판매 사장

한국배구연맹 2대 총재

이동호(50) 대우자동차판매 사장이 한국배구연맹(KOVO) 2대 총재를 맡게 됐다. KOVO는 28일 연맹 대회의실에서 6차 이사회 겸 임시총회를 열고 이동호 사장을 차기 총재로 추대했다. 그동안 박용오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외에는 정치인·관료 출신 인사들이 도맡아 시피 한 인기 프로 스포츠 총재를 경계인이 맡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신임 총재는 7월1일부터 임기 3년의 2대 총재로 활동하게 된다. 후임 총재 물색 과정에서 한나라당 정두언, 임태희, 이종구 의원과 대우차관 이동호 사장 등 후보 4명 중 정두언, 이종구 의원이 고사 의사를 밝히자 임태희, 이동호 두 후보를 놓고 막판까지 저울질했다.

정상 향한 샷! 샷! 샷!



신지애



위성미



우즈

“방어”

“서경오픈 2연패” 다짐

한국여자프로골프 '지존'으로 군림하고 있는 신지애(20·하이마트)가 시즌 첫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2008년 시즌에 열린 7개 대회 가운데 세차례나 우승을 차지한 신지애는 아직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적이 없다. 엠씨스퀘어컵크라온CC여자오픈에서 대회 2연패에 도전했지만 최종 라운드에서 부진한 탓에 뜻을 이루지 못한 신지애는 30일부터 사흘 경기도 용인 레이크사이드골프장 동코스에서 열리는 힐스테이트 서경오픈에서 올해 두번째 타이틀 방어전을 펼친다.
삼금, 다승, 평균 타수 등 모든 부문에서 1위에 올라 있는 신지애가 시즌 처음으로 타이틀 방어에 성공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 레이크사이드 동코스가 여자 선수들에게 합계 6천608야드에 이른다는 점은 장타자 신지애에게 절대 유리한 대목이다.

“도전”

유럽투어 獨 오픈 출전

미셸 위(19·나이키골프)가 유럽여자골프투어(LET) 독일오픈에 출전한다고 AP통신이 28일 전했다.
29일(이하 한국시간) 독일 뮌헨에서 시작되는 이 대회에 스폰서 초청을 받은 미셸 위는 8일부터 열렸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미켈롭 울트라오픈에 출전한 이후 3주만에 대회에 나가게 됐다.
미켈롭 울트라오픈에서는 2라운드까지 4오버파 146타를 쳐 컷오프됐고 2월 필즈오픈에서는 4오버파 220타로 컷을 통과한 73명 중 최하위인 공동 72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번이 올 시즌 세 번째 대회 출전이다.
AP통신은 위성미가 28일 양희영(19·삼성전자)과 함께 연습라운드를 치렀다고 전했다.
양희영은 이번 시즌 삼금 9만8천564유로를 얻어 삼금랭킹 1위를 달리고 있다.

“복귀”

무릎 수술 회복...US오픈 참가

무릎 수술을 받은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메이저대회 US오픈을 복귀무대로 잡았다.
우즈는 28일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콩그레스널 골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정대로 재활 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무릎상태도 좋아졌다. US오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US오픈은 6월12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토리 파인스골프장에서 개막된다. 4월 마스터스대회가 끝난 뒤 수술을 받았던 우즈는 29일 열린 메모리얼 토너먼트 출전이 예상됐다.
하지만 우즈는 “최근에야 연습을 시작해 샷이 안정하지 못하다”며 출전을 포기했다.
7월3일 열리는 AT&T 내셔널 대회도 준비하고 있는 우즈는 내년 초까지 워싱턴 D.C 인근에 자신의 이름을 딴 골프클리닉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을 10월 전남체전
친환경 체전으로

개·폐회식 연출 최종보고회

전남도가 오는 10월10일부터 16일까지 여수 등에서 개도 이래 처음 개최하는 제 89회 전국체육대회를 ‘친환경 녹색체전’으로 치르기로 했다. 전남도는 28일 도청에서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 연출계획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갖고 전국체전을 친환경 녹색체전으로 치르기로 하고 개회식 주제는 ‘전남 판타지’로, 폐회식 주제는 ‘비상하는 전남’으로 확정했다.
연출 주제는 의로운 땅 전남의 역사와 녹색의 땅 전남의 이미지에 맞는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청정한 땅의 의미를 부각시켜 친환경 녹색체전의 의미를 부여하고 전남의 과거와 현재, 전남의 잠재력을 기반으로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가치를 강조하기로 했다.
개회식은 2면이 바다인 풍요로운 땅 전남의 역사와 전통, 대자연과 호흡하며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가치를 통해 깨어나는 새로운 전설로서 전남의 판타지를 연출하게 된다. 식전행사는 연합농악공연과 F1카가 선도하는 선수단 입장, 물·불기둥을 이용한 성화 점화 등의 관객소에 이어 식후행사로 섬·바다·은하수를 표현하는 레이저쇼 등이 이어진다.
폐회식은 전남의 새로운 기운으로 환희와 화합의 꽃을 피우고 전남으로 모인 역동하는 젊은 기운이 세계인과 하나가 되고 신 해양시대의 미래를 향한 힘찬 비상을 표현하는 대형 돛대의 유영, 선수단과 관중이 어울리는 강강술래와 유영 연예인 공연 등의 행사로 진행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한국 여자농구 대표팀

8월9일 올림픽 첫 게임

여자농구대표팀이 8월9일(이하 한국시간) 베이징올림픽 본선 첫 경기를 치른다.
국제농구연맹(FIBA)은 2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베이징올림픽 남녀농구 세부 일정을 발표했는데 A조에 속한 한국은 8월9일 오후 5시45분 우크라이나에 맞붙는다.
상대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6월9일부터 15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최종예선을 통해 올라오는 5개 나라 중 하나가 된다.
한국은 이어 11일 오후 3시30분 러시아와 2차전을 갖고 13일 밤 9시에는 호주를 상대한다.
15일 밤 11시15분과 17일 낮 3시30분에 싸울 상대는 역시 최종예선을 거쳐 올라오는 나라들이 된다. 8강에 오를 경우 19일 B조에서 올라온 나라와 맞붙는다. 준결승은 21일, 결승 및 3-4위전은 23일 펼쳐진다.
남자부에서는 미국이 예선 전 경기를 밤에 치르도록 일정이 짜여 미국프로농구(NBA) 스타들로 구성된 '드림팀'을 보러오는 팬들을 배려했다.
10일 밤 11시15분 개최국 중국과 첫 경기를 갖는 미국은 예선 전 경기를 밤 9시 아니면 11시15분에 하게 됐다.

‘방출 대기’ 백차승

샌디에이고로 이적

미국프로야구 시애틀 매리너스에서 방출 대기 조처를 당한 우완 투수 백차승(28)이 리그를 옮겨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 새 등지를 틀게 됐다.
지난 22일 백차승을 사실상 방출한 시애틀 구단은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샌디에이고 자레드 웰스와 백차승을 트레이드했다고 전했다. 웰스는 시애틀에 합류하면 트리플A 타코마 소속으로 된다. 백차승은 박찬호와 같은 지구에서 속해 머지않아 한국인 볼펜 투수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1998년 미국 진출 후 줄곧 아메리칸리그 시애틀에서 뛰었던 백차승은 내셔널리그 샌디에이고에서 두 번째 야구 인생을 맞게 됐다. 샌디에이고 지역 일간 '샌디에이고 유니언 트리뷴'은 샌디에이고 구단이 그를 볼펜 투수 또는 임시 선발로 기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월 호랑이’



날개 달았다

‘6위로의 도약, 절반의 성공’

KIA 타이거즈가 28일 SK 와이번스와의 홈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되면서 일단 한숨을 돌렸다. 전날 경기에서 12회까지 접전을 펼치고도 만루홈런 두 방에 무너졌던 KIA에게는 하루 휴식이 천금과 같다. 서재응의 부상과 이범석의 부진 때문에 비상이 걸린 선발 로테이션에도 하루 여유가 생겼다.
‘5월 대반격’을 외쳤던 KIA에게 이제 3경기가 남았다. 28일 현재 KIA의 5월 전적은 12승 10패로 승률은 0.545다. 개막 2연전을 포함한 지난달 전적은 8승 19패. 겨우 0.296에 머물던 승률은 0.408까지 올랐고 순위는 최하위에서 6위까지 상승했다. 지난 달 단 한 차례 2연승을 하는데 그쳤지만 5월에는 5연승까지 기록하면서 선전했다.
지난 3일 시작된 지옥의 9연전에서 KIA는 6승2패를 기록하며 5월 대반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흔들리던 공·수구 균형을 이루며 조지력이 살아난 덕분이었다.
특히 5연승에서 마운드는 0.60의 평균자책점으로 상대 타선을 공포 묶는 등 전체적으로 마운드가 안정되면서, 리마와 서재응이 자리를 다 채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자책점은 4.60에서 4.34로 낮아졌다.

불안하던 마운드 뒷심이 좋아졌다. 4.24의 평균자책점을 보였던 유동훈은 5월 0.66의 평균자책점으로 1승 3홀드를 기록하며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하고 있다. 마무리 한기주도 3.11이던 평균자책점이 5월 1.46으로 낮아져 1승 6세이브를 쟁겼다.
타율은 0.253에서 0.267로 뛰어올랐다. 지난 24일과 25일에는 LG를 상대로 무려 28점이나 뽑아내는 등 공격력이 매서워졌다.
27일 현재 0.336의 타율로 3위인 김원섭을 필두로 한 소총군단의 활발한 움직임과 연일 흥행 행진을 펼치면서 팀 내 홈런 1위(5개)에 오른 이재주의

한방이 공격의 조화를 이루 가고 있다.

5월의 분투는 장성호, 최희섭, 서재응의 핵심 선수들의 부상 속에서 이루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가치있다. 하지만, 중위권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는 KIA는 4위와의 격차를 눈에 띄게 줄여놓지 못해 ‘5월 대반격’은 일단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지난 4월 30일 4위 삼성과 6게임차가 났던 최하위 KIA는 27일 현재 6위로 올라섰지만 4위 팀 삼성과 여전히 5게임차가 난다.

1위 SK와 3위 롯데와의 열세를 극복하는 게 6월을 맞는 KIA가 풀어야 하는 숙제다. 지난 27일 KIA는 SK를 상대로 1회 3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며 5-9로 역전패를 당해 올 시즌 6경기에서 전패를 기록했다.

볼펜진의 붕괴로 롯데에 3연패를 당하고 왔던 SK는 광주에 와서 연패를 끊었다. 2승6패로 고전하고 있는 롯데와의 먹이사슬도 6월 중위권 합류를 위해 끊어야만 한다.

5월 SK와의 1경기와 두산과의 2경기가 남았다. 이 경기의 결과에 따라 KIA의 ‘5월 대반격’이 0.600의 승률로 희망적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고, 숙제를 가득 안고 6월을 출발할 수도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5할대 승률 선전

펼쳐서 6위로 도약

투·타 조화 살아나

중위권 진입 기대